



# SHANZAI

Rissho Kosei-kai

Vol. 78



## 會長 法話

# 마음의 정리

입정교성회 회장니와노니치코

## 고뇌의 근원

석존께서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유교경(遺敎經)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만을 좇는 연유로 고뇌 또한 많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고 한없이 욕심을 부린 나머지 결국 정리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주는 따끔한 훈계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등 주변을 정돈하는 시기에 그것을 실감케 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를 스크랩해 두어야지 하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도 못한 채 잔뜩 쌓인 자료만 눈앞에 두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물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있겠으나 그저 마음을 정돈하기에는 역시 주변을 정돈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자 모리 노부조우(森信三)선생께서 스승으로 모시던 분의 서재로 안내 받았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그곳에 있는 것은 책상 위의 책 한 권뿐 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 배움도 깊어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넘쳐나는 물건에 파묻혀 정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변에도 마음에도 쓸데없는 짐을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뇌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유교경의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여러 가지 고뇌에서 해탈코자 한다면 실로 지족(知足)을 관할지며 지족의 법은 곧 부락안운(富樂安穩)이 되느니라」

우리는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족함을 아는 마음」 하나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 이타행(利他行)을

「마음으로 정하여 목표로 삼는다」를 의미하는 「지(志)」라는 글자는 「십(十)」과 「일(一)」과 「심(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 가지의 욕망을 하나로 통일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데, 마음에 꿰어오르는 많은 욕심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부처님의 바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에 휘둘림 당할 때 「지(志)」의 글자를 떠올리는 것이 「즉함을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좀처럼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파고들면 모두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것에 의한 고뇌이지만, 그것들을 「연기의 법」이라는 진리에 비춰보면 무엇이 고뇌의 근본이며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가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직면해 있는 사건에 대한 집착이나 얽매임이

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꿈은 흐리게 합니다. 무량의 경에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탐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착은 재산 등 주변의 것에 대한 얽매임을 말하며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은 물건을 아까워하는 욕심을 말하는데, 그런 번뇌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자기자신보다 「먼저 남부터」와 이타행에 마음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능히 버리는 마음에는 허영이나 체면 등의 얽매임을 버리는 뜻도 있고, 보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덮개 하나라도 「다음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라고 생각하며 꼭 덮어두는 것을 언제나 당연한 일처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루하루 이렇게 이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행위에 마음을 썼을 때 저절로 생활은 즉함을 아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주변의 정돈도 마음의 정돈도 결국은 우리의 「지(志)」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佼成』 2012년3月号

##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노코, 협조 나가누마모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정전으로하는 제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노코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ondon, The United Kingdom**  
Geneva, Switzerland  
Venezia, Italy

**Ulaanbaatar, Mongolia**  
Sukhbaatar

**Sakhalin, Russia**

**Seoul, Korea**  
Pusan  
Masan

**Hong Kong**

**Shanghai**

**Taipei**  
Taichung  
Jilung  
Tainan  
Pingtung

**Colombo, Sri Lanka**  
Kandy-Wattegama  
Polonnaruwa  
Habarana  
Galle

**Chittagong, Bangladesh**  
Dhaka  
Mayani  
Patiya  
Domdama  
Cox's Bazar  
Satbaria  
Laksham  
Raozan  
Chendirpuni

**Bangkok, Thailand**

**RKI of South Asia**

**Sydney, Australia**

**Headquarters: Tokyo**

**RKI of North America (Irvine)**  
Vancouver, Canada  
Seattle  
Klamath Falls  
San Mateo  
Sacramento  
San Jose  
Colorado  
Denver  
Chicago  
Dayton  
New York  
Oklahoma  
Tampa Bay  
Dallas  
San Antonio

**Hawaii**  
Kona  
Maui

**San Diego**  
Las Vegas  
Arizona

**Sao Paulo, Brazil**  
Mogi das Cruzes  
Sao Miguel

SHAN-ZAI 2012년3月号 (Vol. 78)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中村悦子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工藤友紀乃・斎藤華央留・江藤真弓・鈴木佐祐里・金尾江利子・牧野江身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版」「モンゴル語版」「タイ語版」「ベンガル語版」「ヒンズー語版」「ロシア語版」がございます。また、号によってはその他の言語版が発行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なく上記の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